

한국가상천문대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

김상철, 성현일, 김봉규, 김종수, 남현웅

한국천문연구원

지상 및 우주 망원경과 여러 광학기계와 검출기 등의 급속한 발전과 수의 증가로 인해 현대 천문학자들이 다루는 자료의 양은 테라(10^{12})바이트를 넘어 페타(10^{15})바이트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이를 이용한 새로운 천문학 연구를 하고자 하는 시도가 가상천문대(Virtual Observatory)이다.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에서는 이러한 가상천문대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를 수년 전부터 시작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공동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국제가상천문대연합을 만들었다. 한국도 2003년 2월 20일의 첫 회의를 통해 한국가상천문대(Korean Virtual Observatory (KVO): <http://kvo.kao.re.kr>)를 발족시켰다. 여기에서는 가상천문대의 정의와 역할, 한국가상천문대의 구축을 위한 한국 천문학자들의 공동 노력의 필요성, 그리고 국제가상천문대 연맹과의 공조 등에 관한 설명과 토의를 하고자 한다.